

새해 시동준비 완료... 정보통신 '1등 국가' 소망



고현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은 IBM에서 시작해 썬마이크로 시스템즈, MS 등 외국계 IT기업에서만 20년 경력을 쌓은 SW 배테랑이다. 다국적 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고현진 원장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계를 살릴 구원투수로 선택돼 정부 출연기관인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취임한지 벌써 7개월을 맞았다. 고현진 원장을 찾은 시간은 오후 2시20분. 2시30분이 약속 시간이었지만 원장실에는 미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수시로 고 원장을 만나기 위해 원장실을 방문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로 인해 미팅이 30분이나 지연됐다. 하지만 내 뒤로도 미팅을 위해 대기하는 이가 있어 쫓기는 기분으로 인터뷰가 이뤄졌다.

글 권경희 기자 / 사진 이해성 기자

“많이 기다렸죠. 근데 또 30분 후에 약속이 잡혀있는 분이 기다리고 있어 인터뷰가 잘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신년도 다가오고 연말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이렇듯 너무 바쁩니다.”

정부 정책 발표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긴 고현진 원장은 인터뷰를 위해 자리를 잡으며 미팅이 계속 조금씩 지연되는 것에 안절부절하며 인사말을 전했다. 시간을 일초라도 아끼기 위해 빠곡하게 준비해온 질문들을 하나라도 더 물어보기 위해 간략하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한 것에 대해 축하인사말을 나누고 취임 7개월을 맞이한 소감에 대해 여쭙었다.

시야 넓어져 좋지만 속도감 없어 답답

“우선 좋은 점은 IT산업 전반을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야가 더 넓어지고 커진 것 같습니다. 생소한 점은 장사를 했으니까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왔다가 이제는 어떤 업체를 어디까지 성장시키겠다 등의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라 계량적 목표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시적 목표를 이루려고 하니 속도감도 없고 여러모로 박진감은 없습니다. 한 기업 안에서 필요한 재원을 갖고 속도감과 집중력을 갖고 일해왔는데 아무래도 공무원은 일에 절차가 있고 유·관부처 예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일을 하다보니 속도감이 매우 떨어지고 혼자만의 역량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국민 세금 갖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취임이후 어떻게 보였냐는 질문에 고 원장은 “소프트웨어진흥원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하는가 등을 정비하는 시기”였다고 밝히며 “2004년 시동 걸 준비를 완료했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 이와 함께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한 고 원장은 2004년부터 프로젝트 가중치를 매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흥원에 와서 변화를 준 것은 고객만족에 대한 비중 강조입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마다 고객만족에 대한 평가를 ABC로 받을 계획입니다. 연말에 이에 대한 가중치를 매겨 인사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고 원장은 이에 대한 사전 실험도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역점을 둘 사업에 대해 고 원장은 정부 정책자료를 펴며 “수치가 달라 정통부와 일관성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되지”라고 평소 알려진 유머감각을 드러내며 말을 이었다. “세계 5대 디지털콘텐츠 강국을 위해 성장기반 육성전략에 힘을 계획입니다. IT벤처기업 육성전략이 기존의 양적 성장 위주에서 창업·증견·성장 단계별 지원체제로 전환되며, 수출지원 정책은 국내 시장에서 검증된 업체를 중심으로 한 선별지원 체제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들어서면서 내년 사업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공개SW활성화 정책과 소프트웨어엑스포 등을 통해 SW와 IT산업의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고 원장은 임기동안 펼친 사업에 긍정적 평가를 매기며 2004년 사업에도 자신감을 내보였다.

외국계 기업경험 진흥원업무 도움 커

최근 ‘리눅스 전도사’로 불리고 있는 평에 대해 고 원장은 “이를 붙이기 좋아하는 이들의 평일 뿐”이라고 말하면서도 “공개소프트웨어가 국내 수출 산업에 큰 기여를 할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외국계가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IT강국, SW강국이라고 하는데 사실 네트워크 인프라 강국이지 SW강국은 아닙니다. 국내 경기가 그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시장 창출을 우선해 줘야 하고 핵심원천 기술확보에 전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출을 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들이 리눅스 등 공개된 소스를 활용한 대체 제품 개발에 나서는 등 판 자체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MS와 경쟁구도를 형성한 IBM 등이 리눅스로 방향을 잡고 있어 이 변화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몫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윈도와 오피스프로그램을 보급하는 한국 MS의 사장이었는데 ‘리눅스 전도사’로 변신한 것에 대해 스스로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고 원장은 “오히려 지금 이곳에서 일하면서 정부 정책과 일관성 없게 일하는 게 이상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고 원장은 또 “MS는 저를 경쟁업체인 썬마이크로시스템즈에 있을 때 부른 기업입니다. 제가 썬의 영업 영역을 모두 삼켜 썬이 지금 전전공공하고 있어요. 오픈소스의 최대 경쟁자가 MS라면 MS의 장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내가 누구보다도 오픈소스를 잘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MS는 경쟁상대일 뿐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일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적대적으로 대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고 밝혔다.

외국계 기업 경험이 진흥원 원장으로서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고 원장은 “많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선진다국적기업에서 일을 해와서 차세대 IT기술에 대해 많이 보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자르고 어느 부분을 정책적으로 키워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믿어주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외국계 기업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수출만이 국내 SW산업 살 길

고 원장은 수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수출



입니다. 모든 산업의 전제는 수출입니다. 내수 시장에서 충분히 자라서 수출해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과 같이 SW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국내 시장에서 과다경쟁을 펼쳐서는 결코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좁은 시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2004년에는 통신인프라가 강하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콘텐츠 등의 시장선도를 이끌면서 원천기술 확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시장 거점확보를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고 원장은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며 “세계 400여개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회사 가운데 240여개가 국내 업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SW 정책이 너무 양과 숫자 위주로만 이뤄졌습니다. 가능성이 보이는 업체를 발굴해 중점 지원하는 게 품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스타 플레이어’를 키워내 좁은 국내시장이 아닌 세계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흥원도 이 같은 목적을 위해 ‘행정’보다 시장 위주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 유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무조건 투자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가 이어지려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원인 게임’이 돼야 합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되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의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벤처 육성보다는 흠어져 있는 SW업체들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수업체를 기르고 내수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며 역시 ‘스타 플레이어’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 원장은 해외 8개 지사로 나가 있는 ‘아이파크’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원장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몇 개

지역과 중동지역에 ‘아이파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위메이드 사건’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했느냐는 질문에 고 원장은 “표준계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SW가 국내에 들어올 때 국내 기업들도 선진국의 계약서에 모두 따랐습니다. 콘텐츠산업은 우리나라가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급하면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콘텐츠계약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에 표준계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들고 간다고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예방책일 뿐입니다”며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큰 사업가’ 되는 게 꿈

고 원장은 개인사에 대한 질문에 비교적 솔직하게 답변했다. CEO에서 원장으로 변신하며 거액의 연봉과 스톡옵션을 포기하게 됐는데 봉급 차이가 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실 CEO연봉은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역대 연봉을 받은 게 사실”이라며 “진흥원장 급여와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돈을 벌려고 원장을 맡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고 원장을 진흥원 원장으로 영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진대재 장관을 잘 아느냐는 질문에 “삼성전자에 계실 때 업무상 여러 번 만났지만 장관이 된 후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기고교 모임인 ‘화정회’에 자주 나가느냐는 질문에 “최근 2년 간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밝혔다.

“너무 바빠서 동창회 모임에 갈 시간이 없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이들이 경기고교 라인, KS라인을 들먹이는데 사실 진 장관도 저를 영입하고 나서 언론을 통해 경기고교 후배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 업무상 만났어도 그런 얘기 할 기회는 없었으니까요. 진 장관이 저에게 괜히 경기고 출신이라 쓸데없는 오해를 받게 해 한동안 골치를 앓았다고 핀잔을 주더라구요. 허허.”

고 원장의 꿈이 뭐냐는 질문에는 “큰 사업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정도 성취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봉급쟁이 사장이 뭐 사업가입니까. 앞으로 살면서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며 머쓱해 했다.

2004년 새해 소망과 기원에 대한 질문과 함께 디지털콘텐츠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말을 부탁했다. 이에 고 원장은 “우리나라 정보통신 1등 국가가 되는 게 새해 소망입니다. 이는 SW기술 입국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통신인프라 구축에 이어 이제 SW기술 자립이 필요합니다. SW 개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꿈의 정보통신 1등 국가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도 꿈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